

대부도와 풍도·육도 일대를 ‘살고 싶은 어촌마을’로 조성하자

어촌에 활력 불어넣는다 시설 현대화 인프라 개선

안산시가 대부도와 풍도·육도 일대를 ‘살고 싶은 어촌마을’로 조성하기 위한 해양수산정책을 가속화한다. 오는 2026년까지 어업 기반 시설 현대화를 비롯해 정주 환경 개선, 관광 활성화 등에 나선다. 이를 통해 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해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안산시는 16일 오전 시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정책브리핑에서 ‘안산 대부도, 살고 싶은 어촌마을’로 조성하기 위한 해양수산정책을 소개했다.

어업 기반 시설 확충, 어촌지역 동반 성장 체계 마련

시는 수산업과 어촌의 발전 방향을 계획해 살고 싶은 어촌 만들기ye 돌입했다.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대부도 전역과 풍도·육도 어촌지역에 대해 5개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내실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수산업과 어촌지역의 여건을 분석해 연차별 로드맵을 구성하고, 실행 방안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선감항과 탄도항, 흘곶항 등 3곳에 대해서는 낙후된 기반시설의 현대화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개발, 주민역량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총 165억 원(국비 103, 도비 13, 시비 49)의 예산을 투입해 어촌공유센터 건립 및 물량장 조성 등 어업 기반 시설 현대화 사업을 연내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부도에서 김 양식장을 가장 많이 운영하고 양식장 관리 선박 100여 척이 정박하고 있어 계류시설이 부족한 행남곡항에 대해서는 계류시설 확충사업에 나선다. 계류시설 확대가 어업인들의 안전한 어업활동을 돕고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섬 주민 정주 환경 개선, 푸른 물결 활력 넘치는 풍도·육도 조성

시는 지난해 1월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2024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으로 어촌지역의 정주 환경을 개선해 서해권역 명품 도서 지역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시는 공모 선정으로 확보된 총 45억 원(국비 31.5 도비 4.05, 시비 9.45)의 예산을 투입,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풍도 지역 일대 선착장 보수(확장, 증고) ▲배후부지 증고 및 방파벽 정비 ▲배수시설 설치 ▲여객센터 미널 편의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선착장 직선화 ▲배후부지 면적 증가 ▲방파벽 형식 변경 ▲배후 시설 간소화 등의 세부사업 과정을 담고 있다.

아울러, 풍도 주민의 숙원사업인 풍도항 내 주차장(20면)도 신규 조성한다. 주차 환경 개선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풍도 접근성을 높여 침체한 관광산업에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육도항에는 2026년까지 50m 규모의 복합 다기능 부잔교와 연결도로 22.5m를 설치할 예정이다. 섬 지역 어업 환경을 개선하고 원활한 작업환경을 만들어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풍도·육도 지역에 여객선을 1일 1회 운항해 주민들의 해상교통을 지원하고 있다. 5월부터 10월까지 금~일요일과 공휴일에 방아머리항과 풍도, 육도 구간을 잇는 여객선을 1회 추가 운항할 예정이다. 이로써 일일 섬 방문이 가능해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풍도와 육도를 방문할 수 있게 된다.

백종선 대부해양본부장은 “대부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안전한 어촌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라며 “어촌의 청년 어업인 유입과 인프라를 확대함으로써 섬 지역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시는 16일 오전 시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정책브리핑에서 ‘안산 대부도, 살고 싶은 어촌마을’로 조성하기 위한 해양수산정책을 소개했다. 사진은 백종선 대부해양본부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김태창 기자

다음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Q 어촌뉴딜사업 예산이 300억원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주민은 실제로 체감을 하지 못한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어촌 항구의 낙후된 곳 보수하거나 보강하는 사업이다. 대부도 주민중에서도 바닷가 주변이나 어민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 체감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어업이외에도 프로그램이나 체험으로 연결하도록 하겠다.

Q 풍도에서 하루를 묵은 적이 있다. 풍도 환경이 열악하다. 야생화와 야생동물이 많은 곳으로 관광화 사업하기 좋은데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대책이 있는가.

답-풍도는 접근성이 어렵다보니 관광화 활성화에 제약이 있는 게 사실이다. 여객선 운항도 어려움이 많다. 풍도에 부잔교 설치, 개인 레저보트 접안시설 확충으로 가려고 한다. 둘레길 코스 관광인프라 구축 시설 등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

Q 풍도를 관광화 한다고 해도 주민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본다. 대부도에 편의점 하나 없다. 즉 관광객이 풍도에서 돈 쓸 일이 없다는 것이다.

관광객이 늘어나면 해결될 일이라고 본다. 둘레길이나 편의시설을 늘리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대부도저널 운영위원회 2차 임시회 카랑스에서 개최

회칙 제정과 임원선출 수석부위원장에 양금순

대부도저널 운영위원회(위원장 윤성용, 이하 운영위원회) 임시회가 16일 오후 방마머리 소재 카랑스 런치카페에서 개최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운영위원회 회칙 제정과 임원 선출의 건이 상정됐다.

회칙은 4장 19조로 구성되어 있고 운영위원의 권리와 의무, 임원

의 역할, 회계 및 재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또 운영위원회는 임원회의의 경우 매월 1회씩 개최하되 운영위는 2월, 5월, 8월, 11월 분기별로 1회씩 연 4회 개최하고 회의가 열리는 달 셋째 주 수요일에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선출된 주요 임원은 수석부위원장 양금순, 부위원장 김관중·차준경, 감사 최병희, 사무국장 박현배 위원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대부도저널 운영위원회 임시회가 16일 오후 방마머리 소재 경치좋은 분위기 좋은 카랑스 런치카페에서 개최된 가운데 위원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김태창 기자



대부도 벚꽃 만개 대부남동 부흥로 벚꽃길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부흥로의 18일 벚꽃길 모습이다. 말부흥 방향 부흥로는 자연의 아름다움이 살아있는 명소다. 이 길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산시와 대부도에서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벚꽃 명소로도 손색이 없는 도로다. 벚꽃 만개시점은 18일~22일사이로 이번주말이 피크다. 윤성용 기자

대부도저널

창간을 축하합니다

대부 새시대 영농조합법인 탄소 꽃이끼 재배 팀 일동



안산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안산 구간 공사 현장 특별 안전 점검

이민근 시장, 현장 시찰
“유사 사고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철저”

안산시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에 걸쳐 신안산선 복선전철 안산 구간에 대한 공사 현장 특별 안전 점검을 벌였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최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지하 공사 관련 싱크홀과 구조물 붕괴 사고 등을 계기로, 관내에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안산선 복선전철 안산시 전 구간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에서는 공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현장 내 안전 사각지대를 사전에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 시 철도 및 안전 담당 부서와 민간 건설안전 전문가 등이 함께 실시한 이번 점검에서는 지하터널 굴착공사가 수반된 공법 등을 적용 중인 건설 현장을 방문, 주변 지반 약화로 인한 침하·붕괴 등이 없도록 안전 요소를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안산 공사 구간은 공정이 상당 부분 진행돼 안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산시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에 걸쳐 신안산선 복선전철 안산 구간에 대한 공사 현장 특별 안전 점검을 벌였다.

정희재 기자

로 확인됐다.

이민근 시장도 지난 17일 정거장 및 터널 구조물 공사가 진행 중인 신안산선 건설 현장을 찾아 터널 내부와 구조물 일대를 돌며 ▲지하수 유출에 따른 지반침하 영향성 검토 ▲지하 구조물 변위 및 균열 ▲지반 안정성 등을 점검했다.

시는 이번 특별점검 이후에도 ▲국

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구별 시공사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으로 공사 현장의 철저한 관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 정보도 적시성 있게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상하수관 손상으로 인한 지반 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 상하수관

로 점검도 지속 진행할 방침이다.

이민근 시장은 “지하 공사는 보이지 않는 위험이 존재하고, 한 번의 실수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라며 “한치에 방심도 없이 작은 균열도 세심하고 철저한 점검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화랑유원지서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 거행

16일 오후 화랑유원지에서 일반시민 등 2천여 명 참석

안산시는 4월 16일 오후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를 위한 11주기 기억식이 거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은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4.16 재단과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유가족과 이민근 안산시장,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 정부 주요 관계자들과 일반시민 등 약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사 11주기 기억식은 단원고 학생 250명을 포함한 304명의 희생자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해 국회

의장, 해수부장관, 경기도지사, 안산시장, 416재단이사장,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추도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배우 박원상 등이 출연한 뮤지컬 ‘나, 여기 있어요’ 공연 ▲생존자 장 애진 님의 기억 편지 낭독 ▲4.16 합창단의 추모 합창 공연 순으로 이어졌으며, 오후 4시 16분에 울려 퍼진 추모사이렌과 함께 묵념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민근 시장은 추도사에서 “세월호 11주기를 맞은 오늘, ‘회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방식으로 기억하는 일임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안산 시민들은 지난 시간 동안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슬퍼하며 서로를 위로해 왔고, 그 시간은 모두가 함께 견뎌낸 기억”이라고 말했다.

양운영 기자 debora7@naver.com



안산시는 4월 16일 오후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를 위한 11주기 기억식을 거행했다.

양운영 기자

두손병원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외국인 돕기에 나서

미얀마 강진 외국인 환자
함께 돌보고 있어 귀감

두손병원(병원장 황종익)이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돌보는 일을 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두손병원 임·직원들은 최근 미얀마 강진으로 고통 받는 외국인 환자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그들을 돕고자 모금운동을 펼쳤다.

그 따뜻한 마음으로 미얀마 출신 산재환자 코코, 소두의 가족에게 따뜻한 한 도움의 손길을 전달했다.

두손병원의 이번 성금 전달은 산업현장에서 상처 입은 모든 분들에게 작은 정성이지만 늘 함께 한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어서 그 의미가 컸다.

앞으로도 두손병원은 산재환자와 외국인 환자를 위한 맞춤 치료는 물론 지역사회와 이웃의 아픔에 함께하는 따뜻한 병원이 되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미얀마출신 산재환자 코코와 소두는 “연신 감사하다”면서 “한국에 있는 것만도 감사한데 치료도 받고 도움도 받아 너무나 고맙다”고 말했다.

두손병원 관계자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처럼 좋아하는 것을 보니 계속해서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캠페인은 이어질 것이다”며 “앞으로도 두손병원은 산재환자와 외국인 환자를 위한 맞춤 치료는 물론 지역사회와 이웃의 아픔에 함께하는 따뜻한 병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두손병원은 미얀마 지진피해



두손병원이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돌보는 일을 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두손병원 임·직원들이 최근 미얀마 강진으로 고통 받는 외국인 환자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그들을 돕고자 모금운동을 펼친 후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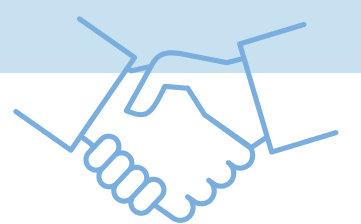
를 입은 외국인 환자에게 직원들의 따뜻한 성금을 전달한데 이어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직원 가족

을 위해서도 따로 모금한 성금을 전달하기도 해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본사방문 감사합니다

- △ 채순식 (주)스타보트 대표
- △ 선현우 안산시의회 의원
- △ 박상수 해신마린 대표
- △ 안두희 민주당 안산병 청년위원장
- △ 정병국 전 안산시청소년수련관 관장



대부도저널 창간을 축하합니다



대부도 해병전우회



해병대 선후배님들의 지역 모임입니다

지역 주민중에 해병대 빨간 명찰을 찾습니다

대부전우회 회장 최영희 010-3755-5859

대부전우회 사무국장 임준채 010-3731-4754

안산시의회, 봉사단체 ‘참안산사람들’ 대상 견학 프로그램 운영

14일 박태순 의장, 회원과 소통하며 의회 소개후 차담

안산시의회가 14일 지역 봉사단체 ‘참안산사람들’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견학에는 참안산사람들 55기를 비롯한 회원 8여명이 참여했으며, 의회에서는 박태순 의장과 김재국 부의장, 한명훈 기획행정위원장, 현옥순 의회운영부위원장, 최찬규 선현우 황은화 의원이 이들을 맞았다.

참안산사람들은 2005년 5월 설립된 순수 봉사단체로, 매년 기수를 배출하며 지역에서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는 이날 참안산사람들 회원들에게 의회 홍보 동영상 시청과 의원과의 만남, 시설 라운딩 등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자세히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함께한 의원들은 지역을 위해 봉사에 나서고 있는 회원들이 의회와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해 이해를



사진은 14일 의회를 방문한 봉사단체 ‘참안산사람들’ 회원들과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는 모습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높이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회원들도 의회에 대한 막연한 인식은 있었지만 직접 와서 설명을 들으니 의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수행하는지 알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박태순 의장은 “이번 견학을 통해 참안산사람들 회원들이 의회와의 거리감을 좁히고 의회 활동에도 더욱 관심을 갖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의회 문턱을 낮추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는 지역사회와의 소통 확대와 시민의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 증진을 목표로 비회기를 활용해 시민 대상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선현우 시의원 발의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 통과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노인 복지 증진 도모 한다

안산시의회 선현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이 최근 제296회 임시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 내 저소득층 노인에게 간병비를 지원해 간병 부담 완화를 통한 복지증진 도모 및 노인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간병인’과 ‘간병비’, ‘저소득층’에 대한 용어 정의와 함께 시장이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지원대상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주민 가운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차상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등의 저소득층 노인으로 정했다.

또한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의 사망, 타 지역 전출, 부정 수급 등의 경우 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안산시의회 선현우 의원이 제296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안산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도록 명시했다.

조례안을 심사한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일 간병비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제6조(지원 대상 및 방법)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을 통해 간병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선현우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안산시 내 취약계층 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지난 11일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김태창 기자

김철진 도의원, 초지향아리골 상인회와 간담회 개최



도의회 안산상담소에서 지원사업 두고 상호협의를

경개선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미령 초지향아리골 상인회장을 비롯한 상인회 임원진과 안산시청 소상공인지원과 과장이 참석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상점가 내 보도블록 교체, 경관조명 개선 등 시설환경 개선을 통한 향아리골 상권 활성화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이 다뤄졌다.

초지향아리골 상점가는 안산시 최초의 골목형 상점가 1호로, 2024년 출범 이후 도 예산 확보를 통해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

현미령 상인회장은 “상인들의 실질적인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협조를 바란다.”며 상점가 내 시설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산시청 소상공인지원과 과장은 “상인회에서 요청한 사항을 대부분 수용할 예정이며, 향후 설명회를 통해 상인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철진 의원은 “초지향아리골이 안산을 대표하는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상인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안산시의회 2024 회계연도 市 결산검사위원 위촉

안산시의회가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들을 위촉했다.

시의회는 14일 의장실에서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해 황은화 시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박제균 회계사, 이정현 회계

사, 조동근 회계사, 박형근 교수, 진용삼 교수, 양태호 전직 공무원은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촉장은 박태순 의장이 수여했다. 위촉장을 받은 결산검사위원들은 이날부터 오는 5월 3일까지 20일 동안

안 의회 제4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등 안산시 전년도 집행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게 된다.

황은화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전문가인 동료 위원들과 협력해 시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대부도저널 창간을 축하합니다



대부도미래발전위원회 일동

대부도 종현어촌계 어항 편익시설 해드림 활성화 사업 개관식 가져

경기도자율관리어업공동체 연합회장 이·취임식도 함께
종현어촌체험마을에서
15일 오전 11시 진행

대부도 종현어촌계(계장 김부열) 어항 편익시설 해드림 활성화 사업 개관식과 경기도자율관리어업공동체 연합회장 이·취임식이 15일 오전 11시 종현어촌체험마을에서 진행됐다. 이날 개관식에는 이민근 시장, 박해철 국회의원, 김재국 시의회 부의장, 양운영 안산시관광협의회 회장(본지 회장) 등 300여명의 내·외빈과 어촌계원, 주민들이 참석했다. 이민근 시장은 축사에서 “오늘 개관하는 해드림 사업은 참으로 오래된 사업이다. 종현어촌계는 전통있는 어촌계다. 오늘 주민들을 위한 하나의 공간이 마련된 것인데 이는 종현어촌계 성장의 한 축이다.”면서 “시민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꾀하고 바다 내음 맡것 풍기는 공간이 시민에게 사랑받는 곳으로 자리매김되는 것으로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아버지가 마을 이장을 했고 어촌계장도 했다.”면서 “그래서 어촌의 현실을 잘 안다. 여기오기 전 구봉도 상가 번영화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좋은 성장의 한 축으로 이



대부도 종현어촌계 어항 편익시설 해드림 활성화 사업 개관식과 경기도자율관리어업공동체 연합회장 이·취임식이 15일 오전 11시 종현어촌체험마을에서 진행됐다. 사진은 개관식을 마치고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공간이 성장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박해철 국회의원도 기념사에서 “여기를 많이 찾는 사람들의 공간으로 만들고 구봉도가 아름답고 여러 조건도 좋은 곳인 만큼 해드림 편익시설도 훌륭하게 만들면 좋겠다”며 “오늘 날씨가 좋는데 날씨만큼 해드림 사업 개관식을 계기로 종현어촌계가 나날이 발전하길 기대한다. 구봉도는 대부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재국 시의회 부의장은 인사

말을 통해 “오늘 사업은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 과정에서 김충식 해양수산과장이 고생 많았다. 박수한 번 쳐주자”고 박수를 유도한 뒤 “앞으로도 어촌계가 살기 위해서는 국비가 많이 필요한데 박해철 의원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하면서 박수를 유도해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었다. 김부열 종현어촌계장은 경과보고를 하면서 “종현어촌계는 계원이 119명인데 오늘 개관식을 갖기까지 많은 분의 도움이 있어 가능했다”면서 “그 동안 도움을 준 분들에게 감사의 마

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자율관리어업공동체 연합회장 이·취임식은 김부열 신임회장이 김남성 이임회장에게 감사패와 꽃다발을 전달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한편 종현어촌계는 종현어촌체험휴양마을 어항편익시설에 9억7천5백만원, 해드림사업 3억원, 어촌마을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1억원 등 총 14억원의 투입해 그동안 순두부마을, 종현커피숍, 수산물판매장 등을 건립해왔고 이날 전체 개관식을 갖게 된 것이다. 김태창 기자

대부동 직능단체연합회 봄맞이 안산사랑대청소 실시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불법투기 근절도 펼쳐

대부동 행정복지센터는 직능단체연합회와 공동으로 17일 대부도 전역을 누비며 봄맞이 안산사랑대청소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안산사랑대청소는 대부동 직능단체연합회원 50여 명과 대부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등 총 60여 명이 참여했으며, 주민들이 다수 거주하는 상동 일대와 관광객이 많이 찾는 방아머리 상가를 중심으로 대청소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캠페인을 함께 진행해 쾌적하고 깨끗한 대부동 만들기에 일조

했다. 김태성 대부동 직능단체연합회장은 “따스한 봄을 맞아 직능단체연합회원들과 안산사랑대청소를 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끼며, 보다 깨끗하고 누구나 찾고 싶은 대부도를 만들기 위해 직능단체연합회에서 항상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장봉순 대부동장은 “우리 대부동을 위한 환경정비에 적극 참여해 주신 직능단체연합회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동에서도 깨끗한 대부동을 위해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대부동 주민자치회가 방아머리 일대를 청소하고 있고 새마을부녀회는 상동지역을 청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두 활기차 있는 모습이 대부도의 미래를 밝게 만들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대부동 직능단체연합회, 영남지역 산불 피해지역에 성금 전달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마음으로 성금 560만원 기탁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직능단체연합회(회장 김태성)는 최근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 560만원을 기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대부동 직능단체연합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마련한 것으로,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를 통해 전달되어 복구 작업과 피해 주민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성금 전달은 종현어촌계 어항

편익시설 해드림 활성화 사업 개관식이 진행된 종현어촌체험마을을 행사장에서 이뤄졌다. 김태성 회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큰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대부동 직능단체연합회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성금이 큰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봉순 대부동장은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대부동 직능단체연합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루속히 영남지역 이재민분들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구봉도의 나무, 황금회화나무 식재 구봉도상가번영회(회장 김학운)가 대부해솔길 1코스 주차장 주변 내대지에 황금회화나무 19주를 심었다. '황금회화나무'는 가지와 잎이 황금색을 띠는 고급수종이다. 중국이 원산지(Chinese Scholar Tree)로 목대가 노랗고 잎은 연녹색이다. 자목으로 이용하기 좋으며 수형과 잎이 아름답다. 사계절 내내 황금색을 띄고 있어 포인트 조경으로 이용할 수 있어 조경수와 공원으로 인기가 높다. 개화시기는 7월에서 8월이며, 황백색의 꽃이 핀다. 김학운 회장은 “황금회화나무를 구봉도의 나무로 지정하고 싶어 이번 식목일을 즈음해 구봉도 일원에 심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토목공사 / 건축공사 / 보강토 시공 / 토지개발/ 토지분양 / 컨설팅



양 지 개 발

대표 김 상 준 H. 010-9393-5783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67-12 (방조제길 113)

안산시,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41명 대규모 선수단 파견

배구·육상·펜싱 등 전 종목 고른 선발

안산시가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앞두고 8개 종목에서 총 41명의 대표 선수를 선발하며 지역 체육의 위상을 드높였다. 종목별로 고른 선발이 이뤄졌고, 특히 단체전에서의 선전과 다관왕 선수들의 활약이 주목된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원곡중학교 배구부의 선발이다. 어민서(주장)를 주축으로 12명의 팀을 이룬 원곡중은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에서 열린 '2025 교육감배 겸 전국소년체전 선발전 배구대회'에서 수일여중을 세트스코어 2-1로 꺾고 9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며 전국소년체전 출전권을 확보했다.

육상에서는 총 6명의 안산시 선수가 경기도 대표로 선발됐다. 시곡중 나예슬(3학년)은 여중부 100m, 200m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고, 릴레이(4×100m)까지 포함해 사실상 3관왕에 해당하는 활약을 펼쳤다. 고잔초 한준희(5학년)는 남중부 200m 1위에 오르며 단연 돋보였고, 와동중 이준우(2학년)는 남중부 110m 허들에서 1위를 차지했다. 부곡초 김지환(6학년)과 경수중 박시후(2학년)는 각각 높이뛰기 종목에서 2위에 올라 선발

됐으며, 선부초 나서현(6학년)은 4×100m 릴레이 멤버로 이름을 올렸다. 양궁에서는 성포초 서은민(6학년)과 성포중의 안은찬(1학년)이 리커브 종목에 선발됐으며, 정시우(3학년)가 남중부 60m(343점)와 30m(345점), 개인종합 1,326점, 단체종합 3,897점을 차례로 석권에 4관왕에 올랐다. 씨름에서도 우수한 기량을 보였다. G-스포츠클럽 소속 김동호(2학년)와 조민영(3학년)은 각각 남중 용사급(-75kg), 용장급(-80kg)에 선발됐고, 매화초 정승호(5학년), 백성민(6학년), 김동아(6학년), 이재호(6학년)는 각 체급에서 선발되어 개인전과 단체전 모두에서 기대를 모은다.

펜싱에서는 G-스포츠클럽이 2년 연속 전국소년체전 대표를 배출하며 주목받고 있다. 전유주(2학년)는 여중 사브르 단체전, 이라임(3학년)은 여중 사브르 개인 및 단체전에 출전하며, 성안중 장선우(3학년)는 남중 사브르 단체전, 김환희(3학년)는 남중 사브르 개인 및 단체전에 선발됐다.

역도에서는 선부중의 노지은(2학년)이 여중부 45kg, 김은별(2학년)이 여중 59kg, 권순권(2학년)이 남중 73kg에 각각 출전한다. 수영에서는 총 6명의 선수가 다양한 종목에서 대표로 이름을 올렸



안산시가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앞두고 8개 종목에서 총 41명의 대표 선수를 선발하며 지역 체육의 위상을 드높였다. 종목별로 고른 선발이 이뤄졌고, 특히 단체전에서의 선전과 다관왕 선수들의 활약이 주목된다.

김태창 기자

다. 성포중 문경록(2학년)은 개인혼영 200m, 양지중 노을(2학년)은 평영 50m·100m와 혼계영 400m 단체전, 초지중 류태연(1학년)은 평영 50m, 고잔초 조하린(6학년)은 자유형 100m·200m, 계영 400m, 혼계영 200m, 고잔초 서현진(4학년)은 평영 50m, 배영 50m, 은혜동산기독교학교 명아인(6학년)은 점영 50m·100m에 출격하며 도전장을 냈다. 레슬링에서는 반월중학교의 이정후(2학년)가 그레고 110kg 체급에 도전한다.

이번 대규모 대표 선발을 두고 이광중 안산시체육회장은 “이번 결과는 단순한 성적을 넘어, 우리 아이들의 가능성과 지역 체육 시스템의 성과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가오는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안산 대표 선수들이 어떤 활약을 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원곡고, 벚꽃과 함께하는 인성페스티벌 개최

‘도전, 배려, 신뢰, 환경’의 가치를 사진으로 담다.

원곡고등학교(교장 견한수)는 4월 10일부터 17일까지, 봄의 따스한 기운이 가득한 교정에서 ‘벚꽃사진페스티벌’을 운영하였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사진 촬영을 넘어 ▲도전 ▲배려 ▲신뢰 ▲환경 등 인성 주제를 중심으로 학급별 단체사진을 촬영하며, 인성의 가치를 실천하고 나누는 뜻깊은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학생들은 각 학급이 선택한 인성 키워드를 바탕으로 벚꽃을 배경 삼아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사진을 연출했다. ‘도전’을 주제로 한 학급은 용기와 열정을 표현하였고, ‘배려’를 선택한 학급은 서로를 아끼고 돕는 따뜻한 모습을, ‘신뢰’를 택한 학급은 단합과 협력을 상징하는 장면을, ‘환경’을 주제로 한 학급은 자연 보호와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담았다.

이번 행사를 함께 준비한 유모 교사는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 학생들이 함께 아이디어를 내고 역할을 나누는 과정이 매우 의미 있었다”며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움직이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페스티벌에 참여한 박모 학생은 “사진을 준비하면서 친구들과 협력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인성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되새길 수 있었다”고 전했다. 촬영된 사진은 학교 내에 전시되어, 학생들이 서로의 가치를 공감하고 존중하는 기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견한수 교장은 “학생들이 직접 주제를 선택하고 이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인성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도록 기획한 행사”라며 “벚꽃의 아름다움 속에서 성장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다”고 전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원곡고등학교는 4월 10일부터 17일까지, 봄의 따스한 기운이 가득한 교정에서 ‘벚꽃사진페스티벌’을 운영하였다.

윤성용 기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 큰 도움이 되었다.”라며 교육 참여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도 안산상의회와 연수원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중소기업의 성장

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안산상공회의소 · 중소벤처기업연수원, 역량강화 교육 시행



안산상공회의소는 4월 15일(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연수원과 공동으로 ‘안산기업 신입사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김태창 기자

안산기업 신입사원 대상 60여 명 안산기업 참여

안산상공회의소(이하 안산상의)는 4월 15일(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연수원(이하 연수원)과 공동으로 ‘안산기업 신입사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안산상공회의소-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연수원 간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안산기업의 신입사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고 신입사원의 재

직 동기부여를 통해 직장생활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업하여 무료로 마련되었다.

금번 교육 과정은 ▲업무 소통기술 ▲직장 내 동기부여 ▲사회초년생 금융생애설계 ▲생성형AI 활용방법 등 신입사원들에게 꼭 필요한 역량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교육에 참석한 신입사원 A씨는 “신입사원으로서의 자세를 배우고 다른 기업에서 온 교육생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특히, 챗GPT 실습 교육은 업무에 직접적으로

“갯벌이 살아 숨쉬는 청정지역 대부도”
“미네랄이 풍부하고 황토로 구워 만든”
“쓴 맛이 없고, 오직 단맛으로 음식의 풍미를 높이는”

동주염전 소금

토판 소금 / 일반 천일염 / 송하소금 판매

소금지기 대표 김 관 중

M. 010-9080-1195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부흥 127-1 / 동주염전 2구



본오3동 시립하은따복어린이집, 환경지킴이 역할



상록구 본오3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4일 본오3동 시립하은따복어린이집 원아들이 재활용 캠페인에 참여해 환경보호 실천에 앞장섰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어린이집 교사와 원생들은 지난 1년간 모은 종이팩 41kg과 폐건전지 1kg을 본오3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져와 화장지 84롤로 교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안산시는 종이팩과 폐건전지를 지정 장소에 가져오면 화장지와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 주는 재활용 장려 정책

책을 운용 중이다.

조경에 시립하은따복어린이집 원장은 “아이들이 이번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환경의 소중함을 배우게 되어 기쁘다”며 “교환 받은 화장지는 관리 사무소를 통해 신안2차노인정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지홍 본오3동장은 “직접 재활용에 참여한 어린이집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이들이 실천한 환경사랑과 어르신을 위한 배려가 감동적이었다”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백운동 지사협, 상반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강화 교육



단원구 백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5일 상반기 위원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진행된 백운동 지사협 위원 역량강화 교육은 작년에 이어 안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강명수 간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내 복지사각지대 유형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중장년 발굴 방법 등을 교육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남소현 민간위원장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생각할 수 있었으며, 최선을 다하겠

다”고 말했다.

이영란 공공위원장은 “백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특화사업 등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오고 있고, 특히 올해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중장년 발굴 사업에 힘을 쓸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역량 강화 교육을 바탕으로洞 찾아가는보 건복지팀, 지역 복지관과 협력해 하반기에도 내실 있게 복지사각지대 발굴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희재 기자

사동, 중화요리전문점 준뽕과 취약계층 후원 협약



상록구 사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6일 중화요리전문점 준뽕(대표 유길영)과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중식 후원’ 협약을 가졌다.

이날 협약으로 사동 행정복지센터는 관내 소외된 어르신, 아동, 청소년을 중심으로 발굴 연계에 노력하고, 사동 중화요리전문점 ‘준뽕’은 대상자들에게 매일 건강하고 맛있는 중식 먹거리를 후원하기로 했다.

중화요리전문점 준뽕(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308-1)은 짜장면, 차돌잡뽕, 고

추짜장 등이 대표메뉴이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세트메뉴도 맞출 수 있다.

유길영 준뽕 대표는 “작년 11월부터 매월 경로당 어르신들을 모시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면서 어르신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봉사의 즐거움을 느꼈다”며 “사동 행정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더욱 관내 주민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자영 사동장은 “꾸준한 후원이 쉽지 않은데 한결같이 주민들을 위해 맛있는 식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선부2동 주민자치회, 의제발굴 위한 지역회의



단원구 선부2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15일 관내 주민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참여예산 의제발굴을 위한 제3차 지역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관내 유치원 및 8개 초·중·고 학교 선생님과 학부모회, 봉사단체, 상인회, 통장협의회를 비롯한 관내 직능단체 등 다양한 주민 대표들이 참석했다.

선부2동은 앞으로도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주민참여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안병도 선부2동 주민자치회장은 “지역의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 의견을 나눈다는 점에서 이번 지역회의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다”며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과 개선점을 찾아 살기 좋은 선부2동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윤희 선부2동장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직접 주인공이 되어 마을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목소리가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선화 기자

와동 통장협의회, 산불 피해지역에 성금 기탁



단원구 와동 통장협의회는 지난 14일 최근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영남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주민들이 정성껏 모금한 성금 2백만원을 기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와동 통장협의회 회원 70명의 뜻을 모아 마련했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맹성희 통장협의회장은 “작은 정성

이지만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 사회는 물론 타 지역사회까지도 따뜻하게 보듬는 아름다운 와동의 지역사회 따뜻한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와동 통장협의회는 평소에도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상자 발굴 및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양운영 기자 debora7@naver.com

일동, 여성자치대학으로부터 사랑의 빵 지원



상록구 일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4일 제35기 여성자치대학(회장 이나경)으로부터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만든 빵 500여 개를 전달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나눔은 이나경 회장을 주축으로 제35기 여성자치대학 수강생들이 마음을 모은 후 첫 번째 활동으로 의미가 있다. 더불어 ㈜아온건축디자인(대표이사 윤준혁)은 찬조로 뜻을 모았다.

이나경 제35기 여성자치대학 회장은 “우리 기수 수강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리며, 뜻을 함께하는 모든 분의 여러 가지 도움으로 예상보다 더 많은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었다”라며 “이번 활동을 시작으로 더 많은 지역 주민을 위한 나눔 봉사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혜숙 일동장은 “의미 있는 활동의 첫걸음을 일동에서 떼어주신 제35기 여성자치대학 회장님 이하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전달해 주신 빵은 따뜻한 마음을 담아 지역 주민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주) 황금토목측량설계공사

대표 유재용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황금로1288 (대부북동)
TEL. 032.886.1817 M. 010-3433-4635



측량(경계, 현황, 분할),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입목조사, 입목벌채허가, 복구설계, 재해위험성 검토)
형질변경, 토목설계(토목4구조계산), 토목시공(매립, 보강토, 옹벽, 토지 절, 성토)
도로 점 사용허가, 사도개설, 성장관리 계획구역 검토 및 자문, 각종 민원처리



행정사 사무소



대표 행정사 **박 정 탁**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504-2

Tel.032-880-8533 Fax.032-880-8532

Hp. 010-2378-7128

wjdxkr78@hanmail.net

세무사 최육진

최적의 세무사, 최상의 경력과 경험

국세청 32년 경력

조사 14년 / 감사 8년
세원관리 6년 / 불복업무 등 4년

퇴직 전 5년

안산세무서 조사과장 퇴임
중부지방국세청 감사팀장
안양세무서 개인납세과장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최육진 세무회계사무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28,201호 (본오동, 보노피아빌딩)
(TEL) 031-8042-6670 (FAX) 0507-1799-3480
(E-MAIL) kujtax0522@naver.com

고객 여러분의 파트너로서
핵심업무에 경력과 경험을 갖추고
최고의 서비스 제공을 준비하고있습니다

☑ 더불어 성장하는 세무 도움

- 매입,매출 정리 등 장부 기장 대행
-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신고 대행
- 직원 급여 관리 (4대보험 등)
- 경영 컨설팅 (세액 감면/ 공제)

☑ 재산 이전 고민해결 컨설팅

- 양도/ 상속/ 증여
- 사전 증여 등 부의 이전 컨설팅
- 주식 이전 (주식 평가 등)

☑ 억울한 세금 해결하는 불복 업무

- 고지 전엔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 고지 후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 납세자 고충 (민원신청)

☑ 조사 등 세무간섭에 대한 대응

- 세무조사에 대한 업무 대행
- 과세자료 해명 요청에 대한 대응
- 잘못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경정청구)

대부도저널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2025년 레저보트매니아 ‘안전지원제’ 울진군 구산리 구산항 동행취재기

12일 전국에서 새벽부터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 새벽6시에 집결한 80여대 보트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잘 형성이 되어 우리에게 바다라는 이름은 굉장히 친숙해져 있는게 사실이다. 그러기에 해양 레저산업도 생각 이상으로 전 세계에서 놀랄 만큼 발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레저보트매니아 ‘안전지원제’가 열리는 경북 울진군 구산리 구산항에 미리와서 동행취재를 시작했다.

캄캄한 새벽부터 자동차의 견인장치에 매달고 온 전국의 보트들은 정말로 장관이다.

전국에서 참가 회원들이 하나 둘씩 울진 구산면의 구산항으로 집결을 한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레저보트의 대표인 ‘레저보트매니아’라는 보트동우회 회원들이 이곳 구산항에서 2025년도를 평온과 안전을 알리는 ‘안전지원제’를 올리면서, 낚시실력을 뽐내는 날이기도 하다.

그동안 ‘레저보트매니아’는 기존의 서해권에서 왕산마리나와 제주마리나에서 행사를 시작 했었는데...

2025년부터는 조금 더 전 국민에 레저보트를 알리고 지역 어민들과 서로 상생의 의미에서 이곳을 선택해 산불로 상심해 있는 주민들을 조금이나마 돕자는 의미로 이곳 구산항에서 어촌계의 협조로 성대하게 치러졌다.

레저보트매니아 운영진과 회원들은 이렇게 산불로 인해서 주민들 마음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위로해 드리기 위해서 주민들이 운영하는 숙박시설과 음식점들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강행을 했다고 한다.

12일 새벽부터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하여 새벽6시에 전국에서 모인 약 80여대의 보트들...

레저보트선장들이 구산해경과출소의 지휘 아래 간단하게 근거리신고를 마친 후 보트들이 출항 준비를 한다.

레저보트매니아 매니저의 06시 정각 출발 신호와 함께 구산항마리나에 대기하고 있는 80여대의 보트들은 일제히 마라톤 선수들처럼 1등을 꿈꾸며 먼~ 바다로 항해를 시작했다.

이날은 기상악화로 낚시시간은 짧았지만 입항하라는 매니저의 무전을 받고 모든 보트가



안전지원제를 올리고 있는 무대 사진의 모습이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동시에 질서있게 구산항으로 입항을 해서 차례로 보트를 슬러프를 이용하여, 육지로 올리고 이날의 낚시는 마무리가 되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동안 갖고 닳았던 낚시실력으로 본인들이 잡은 고기들을 계측대에 올려놓고 1mm라도 더 나가게 늘리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드디어 계속이 다 끝나고...

바로 이어서 레저보트매니아 ‘안전지원제’를 실시한다. 안전지원제를 실시하기전에 기성면 구산어촌계를 대표하여 어촌계장님과 레저보트매니아의 매니저와 간단하게 서로의 상생을 다짐하며 구산항에서 어촌계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레아보트매니아 매니저 ‘준스파파’님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저보트매니아 매니저 준스파파입니다. 이번 안전지원제는 대풍헌 수토사 구산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

사에 큰 도움을 주신 울진군과 기성면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구산어촌계 계장님이 하 어촌계원 여러분들께 레저보트매니아 모 든 회원님들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쉽지 않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함께하여 주신 레저보트매니아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풍성하고 따뜻하게 해주시는 우리 협력업체 대표님이하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 언제나 희생하고 봉사해 주시는 우리 자원봉사자분들과 운영진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2014년 많은 혼란속에 탄생한 레저보트매니아가 현재는 명실 상부한 대한민국 최대, 그리고 최고의 보팅인들의 모임이 되었습니다. 더 좋은 레저보팅 환경의 조성을 위해 여수 이순신마리나, 그리고 이번 구산항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행사와 캠페인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긴시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더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에는 역부족 이었다고 생각 됩니다. 이번 구산항 어촌계와의 자매 결연이 더 낫은 환경 조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 우리 레저보트인들 노력의 결실로 다가가는 큰 발걸음

이 될 것입니다. 지킬것은 지키고 해야 할 일은 누구보다 앞장서는 우리 레저보트매니아는 최고였고 앞으로도 최고 일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레저를 아름답게~~” 레아!를 마음에 담고 외치며 바다로 나아가는 우리 레아인들의 안전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레저보트매니아 구산항 안전지원제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 ‘안전지원제’를 올리면서 준비한 돼지머리에 들어오는 봉투와 레저보트매니아 카페에서 그동안 산불로 인해 모금했던 산불기금 전액을 울진군 기성면 구산어촌계에 기부를 했다.

안전지원제가 끝나고 바로 이어서 2부행사도 약 2시간동안 협력업체에서 준비한 선물들을 한사람도 빠짐없이 회원들께 전달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날의 행사를 가장 재미있게 이끌어준 사회를 맡은 부매니저 ‘팔방미인’의 프로다운 사회자로서 행사가 시간가는 줄 모르고 약 2 시간동안 한사람도 이탈 없이 진행이 되었다. 약300여명의 레아 회원들의 손에 손에 선물들이 한가득이다.

새벽부터 입장하는 순서대로 응모권을 받아서 행사마지막에는 응모권 추첨으로 또 하나의 이벤트는 투표함에서 뽑은 번호표 1등으로 뽑혀서 수백만원짜리 로렌스어탐기를 선물로 받기도 했다. 그리고 이날 짧은 시간 진행된 낚시대회에서 각 어종별 1등을 한 회원은 우럭상, 대구상, 광어상, 도다리상을 받았다.

레저보트 매니아의 매니저님의 인사말 속에..

이번 구산항 어촌계와의 자매 결연이 더 낫은 환경 조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우리 레저보트인들의 노력의 결실로 다가가는 큰 발걸음이 될 것이다. 지킬 것은 지키고 해야 할 일은 누구보다 앞장서는 우리 레아는 최고였고 앞으로도 최고일 것이다.

언제까지나 레저를 아름답게~ ‘레아’를 마음에 담고 외치며 바다로 나아가는 레아인들의 안전과 행복을 기원한다.

언제인가 취미생활 1위를 자전거가 우리 일상에서 레저생활 1위를 찾아왔을 때도 있었

다. 말 그대로 각 지자체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있는 도로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 적도 있다. 이제는 취미생활 1위? 레저생활 1위는? 는 바로 낚시다.

그런데 정부는 우리 레저생활 1위인 낚시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아니, 각 지자체는 낚시를 위한 주변환경을 아예 생각도 못하고 있다.

보트는 갈수록 늘어나는 실정이고 각 지자체에서는 낚시인들을 위하여 이제는 마케팅을 할 때가 온 것이다.

보트낚시는 바다가 있는 전국의 보트를 내리고 올리는 슬러프가 가장 기본이다. 각 지자체에서 보트를 계류할 수 있는 계류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트인들은 어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민슬러프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부족하여 그지역 주민, 어민들과 잦은 마찰도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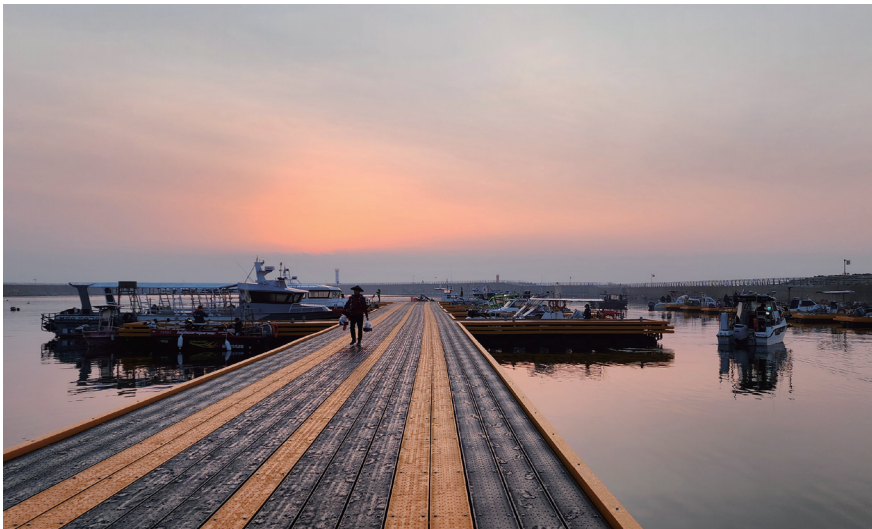
앞으로 우리 정부는 선진국처럼 국민의 레저생활의 권리인 행복인 레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발빠르게 대응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보트를 승용차로 올리는 모습이다.

윤성용 기자



구산항 계류장의 모습이다.

윤성용 기자



구산항 어촌계장과 업무 협약식을 갖고 있는 모습이다.

윤성용 기자



레저보트 매니아들이 안전지원제를 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윤성용 기자



무엇이 그리도 좋을까? 참가 회원들의 환호성이 대단하다.

윤성용 기자



낚시대회 1등상을 받은 매니아의 모습이다.

윤성용 기자

안산국제거리극축제, 5월 3일 개막... 시민과 함께 거리예술의 향연

사흘간 안산문화광장 일대에서 하려하게 개최 ‘거리에서 만난 예술, 세상을 잇다’라는 슬로건

안산시는 오는 5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안산문화광장 일대에서 '제21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를 개최한다고 16일 언론 정례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거리에서 만난 예술, 세상을 잇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안산시와 안산문화재단이 직접 기획하고 추진하는 제21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총 123개에 달하는 공연팀이 참가해 136개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2005년에 시작, 올해로 21회를 맞이하는 이번 축제는 지난 축제들에 비해 관람객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대중성을 염두에 두고 기획됐다. 대중성이 짙은 거리예술 공연을 위주로 그 어느 때보다 재미와 흥미를 더할 예정이다.

개막 공연으로는 ▲서울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 학생들의 합창 ‘모두 함께 한 걸음’ ▲국내 최초로 예술무대를 기반으로 불을 이용해 춤을 추는 장르를 연구·개발한 ‘예화 플레잉 파이어’의 불 퍼포먼스 ‘열정의 조각’ ▲대한민국 대표 스트릿댄스 전문 예술 단체인 ‘캠블러크루’와 대한민국 대표 여

성 락킹팀 ‘롤링핸즈’가 함께 선보이는 스트릿댄스 ‘스트릿 온 더 탑’이 펼쳐진다.

폐막 공연은 대한민국 대표 미술사 이은결이 나선다. 이은결 미술사는 환상적인 미술쇼 ‘일루전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안산문화광장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을 대형 불꽃놀이 ‘환상 불꽃’으로 축제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개·폐막 공연 외에도 ▲거리예술 전문 단체들의 예술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공식 참가작’ ▲안산의 이야기를 선보일 ‘제작 지원 프로그램’ ▲시민들이 공연자로 참여하는 ‘시민 버전’ 등을 운영한다.

어린이와 청소년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 공연과 대형 워터 공간에서 진행되는 인디 뮤지션들의 버스킹 ‘뮤지스트리트’, 대형 캐릭터 에어벌룬 전시를 통해 시민들이 포토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거리미술’ 등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박종홍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제21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안산시와 안산문화재단이 함께 시민들의 시선과 눈높이에 맞추어 직접 기획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안산의 일상이 예술로 몰드는 특별한 5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Q 오늘이 세월호 11주다. 국제거리극축제 현장에 신안산신 호수정거장이 있다. 혹시 있을 수 있는 지하 안전대책은 세워두고 있는가?

축제 전 2~3차례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행사전날까지도 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할 것이다.

Q 안산국제거리극축제가 경기도 대표축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어떻게 된 것인가

문화관광부 축제에는 신청했지만 안됐다. 그러나 예술문화분야 축제에는 공모에 응해 당선이 됐다. 정부로부터 4억원의 예산을 받았다.

Q 축제현장에서는 핸드폰이 통화되지 않을 때가 있다. 중계기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또 장애인 휠체어 화장실이 부족한데 준비는 잘 되고 있는가?



안산시는 오는 5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안산문화광장 일대에서 '제21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를 개최한다. 박종홍 문화체육관광국장이 16일 언론 정례브리핑을 통해 밝히고 있다. 양운영 기자

주변상가와 협의해서 잘 준비할 것이다. 그래도 부족하다면 행사장 광장에 따로 설치하는 것도 검토하겠다.

다음은 기자들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Q 여초뉴딜사업 예산이 300억원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주민은 실제로 체감을 하지 못한

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여초 항구의 낙후된 곳 보수하거나 보강하는 사업이다. 대부도 주민중에서도 바닷가 주변이나 어민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 체감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어업이외에도 프로그램이나 체험으로 연결하도록 하겠다.

사진 :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이주배경 인구 10만 시대, 안산시 ‘상호문화도시’로 미래 준비

외국인 주민과 상생하는 상호문화도시 조성 계획 발표 ‘상호문화 기반으로 함께 성장하는 국제도시 안산’ 주제로

이주배경 인구가 10만 명을 넘어선 안산시가 ‘상호문화를 기반으로 함께 성장하는 국제도시’ 조성을 목표로 외국인 주민의 정착 지원과 문화교류 확대 등을 위한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안산시는 16일 오전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4월 언론브리핑에서 ‘상호문화를 기반으로 함께 성장하는 국제도시 안산’을 주제로 안산시의 이주 배경 인구 현황과 상호 문화 정책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인구 증가 추세 외국인 주민... 점차 중요해지는 상호문화 정책

지난 2022년 통계청에서 밝힌 인구 전망에 따르면, 2042년 대한민국의 총인구는 4,963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 반면, 이주배경인구는 220만 명에서 2042년에는 404만 명으로 약 84% 가량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안산시는 이러한 인구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올해 3월 기준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는 118개국 10만0,580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3.9%를 차지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외국국적동포 비율이 가장 높고, 지난 2008년 대비 외국인 주민 수가 세 배 이상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 주민들이 우리 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이들을 포용하고 정착을 도울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안산시는 외국국적동포 등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상호문화 상록센터’ 조성 추진

안산시는 지난 2020년 유럽평의회로부터 상호문화도시로 지정되었으며, 2022년에는 중장기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해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상호문화도시로의 발전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시설 기반을 조성하는 것에 힘을 모으고 있다.

우선, 이주배경 인구의 증가에 발맞춰 다양한 문화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상호문화 상록센터’를 상록구 사동 주민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조성한다. 오는 2027년 9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호문화 상록센터’에는 상담실과 한국어 교실 등이 갖춰질 예정이다.

또한, 2009년 지정된 다문화마을특구는 2023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역특성을 활용한 로컬디자인을 개발하고 있다. 올해 12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사업에서는 로컬디자인 특화 시설물 설치 외에도 다문화마을특구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

아울러, 안산 글로벌다문화센터 2층과 3층에 각각 위치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글로벌청소년센터는 다문화가족과 이주배경 청소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한국 사회 조기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고려인 문화센터(단원구 지곡로6길 37)는 고려인 주민들의 권익 증진과 생활 안정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 상담, 고려인 주민 자녀 교육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상생하고 교류하는 국제도시 실현

안산시는 외국인 주민들의 사회 적응 외에도 내·외국인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상호 교류의 장을 지속 마련, 상생하고 교류하는 국제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외국인 주민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8개국 13명으로 구성된 외국인주민협의회와 11개국 30명으로 구성된 외국인주민 모니터링단을 각각 운영해 외국인주민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있다.

교류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태권도 아카데미와 시범단 등의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도 운영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10년 출범한 안산시 세계소년소녀합창단은 문화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시는 5월 17일 세계인의 날을 기념해 화랑유원지 대공연장에서 ‘세계인의 어울림 한마당’ 축제를 개최해 다양한 국가의 이주민들과 시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상호문화도시 국제심포지엄’ 개최 예정

올해는 안산시가 전국 최초로 외국인 전담 부서를 설치한 지 20주년이자 상호문화도시 지정 5주년을 맞는 기념비적인 해다. 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오는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상호문화도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유럽평의회 사무국을 비롯해 일본 하마마츠시를 포함한 해외 상호문화도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상호문화 정책의 미래비전과 공동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산시는 상호문화주의 가치를 시정 전반에 확산하고 내·외국인 주민 간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상호문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 공포한 바 있다.

이는 대한민국 제1호 상호문화도시로서 모든 구성원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4일 고려인 동포들의 오랜 염원이 담긴 ‘고려인 독립운동 기념비’가 화랑유원지에 전국 최초로 설치됐다. 이는 고려인 선조들의 숭고한 독립 정신을 기리고 다양한 배경을 포용하며 살아가는 안산시는 공동체 정신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뜻깊은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역배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은 “안산시는 다양한 문화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상호문화도시로서, 모든 주민이 함께 성장하고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의 정착 지원과 문화교류 기반을 강화해 ‘국제도시 안산의 위상’을 한층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들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Q 통역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통역사 필요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외국인 3개 기관에서 안내도 병행하고 있



이주배경 인구가 10만 명을 넘어선 안산시가 ‘상호문화를 기반으로 함께 성장하는 국제도시’ 조성을 목표로 외국인 주민의 정착 지원과 문화교류 확대 등을 위한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이역배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이 16일 오전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4월 언론브리핑에서 ‘상호문화를 기반으로 함께 성장하는 국제도시 안산’을 주제로 안산시의 이주 배경 인구 현황과 상호 문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윤성용 기자

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4일 고려인 동포들의 오랜 염원이 담긴 ‘고려인 독립운동 기념비’가 화랑유원지에 전국 최초로 설치됐다. 이는 고려인 선조들의 숭고한 독립 정신을 기리고 다양한 배경을 포용하며 살아가는 안산시는 공동체 정신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뜻깊은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역배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은 “안산시는 다양한 문화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상호문화도시로서, 모든 주민이 함께 성장하고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의 정착 지원과 문화교류 기반을 강화해 ‘국제도시 안산의 위상’을 한층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들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Q 통역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통역사 필요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외국인 3개 기관에서 안내도 병행하고 있

다. 10개 국어가 가능한 통역사 항시 배치하고 있다. 찾아가는 통·번역서비스도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후 고려인 3천여 명이 입국해 어려움이 많은데 더 많이 통·번역 하도록 노력하겠다.

Q 상호문화 확산은 서로가 존중하는 문화다.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추진하는 것 있느냐

과거는 문화를 나열하는 정책이었다. 상호문화는 서로가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다. 원곡초가 다문화 선도학교다.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교류하고 있다. 세계소년소녀합창단 운영도 그런 차원으로 이해 해달라.

Q 중도입국 근로자 자녀들의 어려움이 있다. 특히 러시아 쪽이 더 심각하다. 기업체와 학교 등과 연계해 협력하는 대책이 필요한데 시의 계획은 있는가.

시는 학교경비사업에서 지원하고 교육청은 평생교육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아이들의 발달과정에 따라 다르게 지원하고 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섬마을 선생님」 노래 배경지 대부도 ③ 구름도 쫓겨 가는 섬마을 대부도



晴境(정경) 金善喆(김선철)
전 대남초등학교 교장
현 안산문화관광해설사

필자가 2005년 대남초등학교 교장으로 발령을 받을 당시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 특성과 교육을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이었다. 이 학교는 폐교(閉校) 대상의 소규모 학교라 예산지원이 어려웠다. 학교 정문 앞에 넓게 펼쳐진 갯벌의 다양한 동물과 염생식물, 그리고 바닷물을 이용하면 어느 학교도 따라 올 수 없는 독보적인 특성과 학교가 되는 것이다. 특성과 교육이 활성화되면 폐교(閉校) 대상 학교에 학생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했다.

2006년 1월 안산시청과 해양수산부로부터 학교 앞 갯벌 3,300㎡에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받아 학교염전을 완성하고, 갯벌·생태학습장도 운영하여 국내는 물론 일본의 람사르재판과 중국의 차이나국제습지센터에서 전문가와 학생까지 찾아오는 ‘갯벌·염전체험장’이 되었다. 그 결과 2008년부터 대남 학구(學區)로 이사로 오고 학생 수도 증가하였다.

“섬마을 선생님” 노래 2절 첫 구절이 “구름도 쫓겨 가는 섬마을에”로



2007년 7월 18일수요일 mbc 로그인 상성뉴스 갯벌과 염전이 교실 촬영장면

시작한다. 해당화가 피는 5월은 농어촌(農漁村) 논밭에 씨앗을 뿌리거나 모내기 하려면 비가 내려야 한다. 농부들의 애간장을 태우지 않으려면 구름이 쉬어가야 하는데, 이경재 작자는 왜 “구름이 쫓겨 가는 섬마을”이라 하였는지 무척 궁금하였다.

먹구름이 염전 위로 몰려오면, 덧물판(염도 17% 내외)과 결정지(염도 26% 내외) 바다에 얹게 깔린 많은 함수를 모아 해주(海宙; 鹹水桶)에 집어넣어야 한다. 햇빛이 나면 결정지(結晶地) 바닥을 고무래로 빗물을 깨끗이 훑어낸 후 함수(鹹水)를 끌어올려 염전 바닥에 얹게 깔아 다시 증발시켜 천일염을 생산하는데 할 일이 너무 많다. 선생님들은 수업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학교염전(學校鹽田) 운영을 교장이 직접(直接)하였다. ‘구름이 끼고 비가 오면’ 함수 관리가 너무나 힘이 들었고 천일염 생



2007년 7월 20일금 mbc 로그인 상성뉴스 갯벌과 염전이 교실 화면 캡처

산이나 염전 체험에 어려움이 컸다. 이런 과정에서 그 노랫말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면 1960~70년대 대부도에 얼마나 많은 염전이 있었을까? 대부북동에는 구봉도의 대봉·구봉·서호 염전, 상동의 대흥·상동·시화·태흥 염전, 대부동동에는 까치섬의 용화·대동 염전, 송파배기의 동중·천일 염전, 신당리의 대종·대창 염전, 선감도의 경기염전, 탄도염전, 대부남동에는 어지현(魚池峴)의 창하염전, 고랫부리의 강겨래염전, 긴장불이의 대남·이화·금화 염전, 흥성리의 천신·대성·만성·홍성 염전, 셋터의 중앙염전, 중부흥의 금당·동일·동립·한신·대흥·중부흥·백화 염전, 말부흥의 대부·대호·광랑·유성 염전 등 36개가 있었다. 그중 대남초등학교 학구에만 21개가 있었다.

요즈음은 기계화되어 예전보다 힘이 적게 들지만, 철(鐵)로 된 기계(機

械)나 도구(道具)들도 쉽게 망가진다. 그리고 농사일에 비하여 염전 작업은 너무나 힘들었다. 1960년대 중후반까지 흘곳에서 마포나루까지 소금 뚝배를 운행하였던 이구영 소금 뚝배 선장에 의하면 “소금값이 쌀보다 2~3배 더 높았고, 그 귀한 소금을 많이 생산하려면 구름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염부들은 소금이 함수의 표면(表面)부터 하얗게 만들어 짐으로 ‘소금꽃이 핀다.’ ‘소금이 온다’ 등의 말을 한다. 1965년 5월 이경재 작자 일행이 대부도를 다녀간 후 학교 주변 염전에서 일하는 염부(鹽夫)의 이마에 땀방울이 가득한 모습을 떠올리며 노랫말을 지었을 것이다. 「구~름도 쫓겨가~는 섬~마을에~」에서 이경재 작자의 예리하고 뛰어난 통찰력과 더불어 염부(鹽夫)의 노고(勞苦)를 덜어 주려는 배려의 마음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니 고개가 숙여진다.

데스크 칼럼

행사장에서 내빈소개 거품을 빼자



김태창
편집국장

각종행사에서 내·외빈 소개는 행사의 격식을 갖추고 참석자들에게 중요한 인물을 알리는 하나의 요소다. 그러나 최근 일부 행사에서는 내·외빈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대부분의 참석자를 내·외빈으로 소개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누군가는 문제를 제기해야 하고 누군가는 집고 넘어가야 한다고 봐서 이번 기회에 무엇이 문제인지 공론화 해보려고 한다.

귀빈 소개가 길어지면 시간 낭비다. 행사에서 내·외빈을 소개하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다. 대부분의 참석자를 내·외빈으로 소개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행사의 흐름이 끊길 수 있다. 이는 참석자들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행사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중요성이 희석될 수 있다. 내·외빈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면, 실제로 중요한 인사들의 소개가 묻힐 수 있다. 행사의 주체자나 시장, 국회의원 등 중요한 인사들의 소개는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지만, 참석자 대부분이 내·외빈으로 소개되면 중요성이 희석될 수 있다. 시장과 국회의원의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참석자들의 혼란도 있을 수 있다. 대부분의 참석자를 내외빈으로 소개하면, 참석자들은 누가 정말로 내·외빈인지 헷갈릴 수 있다. 이는 참석자들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행사의 분위기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

그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몇 가지 해결점을 제시해 본다.

내·외빈의 범위 제한이 필요하다. 내·외빈의 범위를 실제로 중요한 인사들로 제한해야 한다. 시장, 국회의원, 행사주최자 등 행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인사들로 한정하여 소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조금 더 필요하다면 선출직 공직자 정도를 추가로 소개하는 정도에서 그쳐야 한다고 본다. 도의원과 시의원 등 선출직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사장에서 소개받는 게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효율적인 소개가 필요하다. 내·외빈 소개를 간결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참석자들에게 중요한 인사들을 알리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고, 빠르게 다음 순서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시장을 소개하고 구청장도 소개하고 국장도 소개하고 동장까지 소개한다면 소개하는 행사주최측에서 크게 실수하는 것이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공직자끼리 얼마나 어색하겠는가.

참석자들의 이해도 제고도 필요하다. 참석자들에게 내·외빈의 개념과 범위를 사전에 알려주어, 누가 내·외빈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참석자들은 누가 정말로 중요한 인사인지 파악하고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자면, 행사의내·외빈 소개는 행사의 격식을 갖추고 참석자들에게 중요한 인물을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참석자를 내·외빈으로 소개하는 것은 시간 낭비, 중요성 희석, 참석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내·외빈의 범위를 제한하고 효율적인 소개를 통해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제고해야 한다.

윤리적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언론

대부도저널

창간
2025년 4월 7일

주 소
대표전화
홈페이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상동로97, 3층(대부북동)
(032)880-9994 팩스 : (032)880-9961
www.daebudojournal.com
E-mail_ dj250407@naver.com
입금계좌 : 신한 131-022-633961(대부도저널주식회사)

회장 **양운영** 대표이사/발행인 **윤성용** 편집국장 **김태창** 광고국장 **김선충**

등록번호 경기 다50794

구독료 월10,000원 | 1부 3,000원(주간)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내가 쓰는 낚시대도 신용이 있습니다

100% ‘국내제작’ 판매부터 A/S까지 더존이 책임지겠습니다

낚시대의 수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더존이 함께하겠습니다

더존 피싱

Deojon Fishing

CBS 173

Made in Korea

김운호 010-3732-0331

바다 낚시업의 활성화와
바다 낚시인의 더 나은 힐링 장소를 위해
기여하는 **한국바다낚시연합회**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바다 낚시를 대표하는 한국바다낚시연합회입니다.
우리 연합회는 해양수산부 산하 비영리법인으로 바다 낚시의 선진화를 위한
교류 협력, 홍보, 정책개발, 회원사의 경영역량 기강화 및 권익창출 지원을
통하여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및 수산자원보전과 국민레저의 질적 향상을 다
하겠습니다.

한국바다낚시연합회는 100만 낚시인과 바다낚시업 사업주의 소중한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법인 한국바다낚시연합회 회장 조부형



사단법인
한국바다낚시업연합회